

【특 집】

안수길의 만주체험과 재현의 정치학*

- 국민국가체제 내에서의 디아스포라적 상상력 -

김 재 용**

┃ 차 례 ┃

1. 한국전쟁 이후 정치적 재편과 만주의 재인식
2. 만주국 시기 안수길의 소설과 남한에서 쓴 『북간도』의 연속성
3. 『북간도』와 반공이라는 국가 이데올로기의 개입
4. 국민국가 체제 내의 디아스포라적 상상력

국문초록

만주국에서 활동하던 작가들은 해방 후 남한, 북한 그리고 중국을 선택하여 그곳에서 작가활동을 계속 하였다. 안수길은 남한을 선택한 작가 중에서 가장 문제적인 인물이다. 전쟁이후 그는 만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발표하였는데 장편소설 『북간도』는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일부의 학자들은 이 작품에서 드러난 만주 인식이 해방 전의 그의 작품과는 단절되어 있다고 보고 그 이유로 민족주의의 개입을 들고 있다. 해방전 안수길 작품에서의 만주를 바라보는 시선과 해방후 안수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만주에 대한 시선은 별로 다르지 않는데 그 양자 모두 기본적으로 국민국가 체제 내의 디아스포라적 시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수길은 국민국가체제 내에서 국가의 보호 없이 살아간다는 것의 어려움과 더불어 국민국가체제의 억압적 측면을 동시에 그려내고 있다. 반면에 『북간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의 단절과 어긋남은 당대의 반공 이데올로기의 검

* 이 논문은 2011년도 원광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열에서 비롯된 것으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하다. 안수길은 1924년에 만주로 이주하였는데 정작 자신이 잘 알고 있던 이 시기에 대해서는 『북간도』에서 거의 그리지 못하고 주마간산으로 지나간 반면, 자신이 체험하지 못하였던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짙진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단절은 작가능력의 부실함이나 민족주의적 개입과는 무관한 것으로 당대의 지배이데올로기인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의 간섭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안수길이 만주를 재현하려고 했을 때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주제어 : 안수길, 만주, 북간도, 민족주의, 국민국가, 검열

1. 한국전쟁 이후 정치적 재편과 만주의 재인식

만주국 붕괴 이후부터 한국전쟁에 이르는 시기 문학작품에서 만주의 재현은 귀환과 정착에 집중되었다. 중국 동북 지역에 그대로 머무는 정착이나, 한반도 남북으로 귀환하여 새로운 거주지 터전을 마련하는 분주한 일이 일 단락되면서 작가들은 자신들의 이동을 성찰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동북지역에 그대로 남았던 김창걸과 리옥, 한반도 남쪽으로 귀환하였던 염상섭, 안수길, 허준, 김만선, 한반도 북쪽으로 귀환하였던 현경준, 김조규 등이 그러했다. 이들처럼 만주에서 거주하였던 작가들뿐만 아니라 과거 만주를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을 창작한 적이 있는 이기영, 한설야도 만주를 시공간적 배경으로 작업을 하였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자신들이 딛고 있는 땅이 결코 안정적인 기반이 아님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남북이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하였고 중국동북지역도 내전에 휩싸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이 종결되면서부터는 상황은 급변하였다. 남북의 분단이 고착되기 시작하였고 중국 동북 지역 역시 북한과는 다른 중국의 영역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작가들은 유동적이었던 삶이 주었던 불확실성과 가능성을 떠나서 고정된 틀 속에서 확정성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 이후, 세 지역에 거주하는 작가들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국가 이데올

로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 동북 지역에 거주하는 작가들은 조선인에서 중국 조선족으로 정체성의 변화를 강요받았다. 그동안 가졌던 한반도와의 연속성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웠고, 설령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표현하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만주를 재현하려고 할 때 중국의 국가 이데올로기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한국전쟁 이후 김창걸이 창작한 작품들에서 이러한 면모를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전쟁 이후 만주는 북한 내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1950년대 중반부터 만주를 재현하는 여러 가지 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국가 이데올로기는 강화되었다. 만주에서의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 역사 이야기의 주를 이루기 시작하였고 다른 것은 이를 중심으로 재배치되었다. 일제 말에 만주 배경 장편소설을 여러 편 썼고 한국전쟁 이후 『두만강』을 통해 다시 만주를 재현하려고 했던 이기영은 이 과정에서 작가가 겪은 고뇌를 가장 잘 보여준다. 남한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전쟁 이후 고착화된 반공 이데올로기는 만주 재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만주에서의 다양한 삶과 운동의 재현은 전적으로 반공주의라는 남한의 국가 이데올로기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안수길은 바로 이러한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작가이다. 한국전쟁 이후 중국 동북 지역의 김창걸, 북한의 이기영, 남한의 안수길이 창작한 만주 배경의 소설을 각각의 국가 이데올로기와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보면 한국전쟁 이후 만주 재현의 정치학이 아주 잘 드러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남한의 안수길을 다루고자 한다.

2. 만주국 시기 안수길의 소설과 남한에서 쓴 『북간도』의 연속성

1959년부터 1967년까지 무려 8년에 걸쳐 창작된 『북간도』는 한국 전쟁

이후 만주를 재현한 문학 중에서 가장 문제적인 작품이다. 오랫동안 만주에서 생활하였던 안수길이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서 형성된 반공이라는 국가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북간도』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전 만주국 시기의 창작과의 연속성과 단절의 문제이다. 만주 지역에 살던 안수길은 1935년 이후 장편소설 『북향보』, 중편소설 「새벽」과 「벼」를 비롯하여 여러 편의 단편소설을 창작하였다. 이러한 작품들과 남한으로 귀환하여 한국전쟁 이후 쓴 이 작품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몇몇 연구자들은 만주국 시기의 안수길의 소설과 『북간도』 사이에는 큰 단절이 있다고 본다.¹⁾ 만주국 시기의 창작에는 민족주의적인 것이 없는 반면, 『북간도』에서는 민족주의가 전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북간도』는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꼼꼼하게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

『북간도』에 두드러진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만주국 시절의 작품과 단절이 생겼다고 보는 논자들이 가장 먼저 근거로 드는 것은 작품 속 이한복 일가 특히 그의 손자 창윤과 증손자 정수가 민족주의 운동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서사이다. 그리고 작품 전반에 걸쳐 있는 수난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과연 만주국 시기의 안수길의 소설에서는 이러한 점이 드러나지 않는가? 만주국 시기 창작된 소설 중 안수길의 문제의식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작품인 「벼」를 보면 『북간도』의 민족주의가 결코 단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안수길이 「벼」를 발표한 1941년²⁾은 만주국의 국가 이데올로기가 한창일 때이다. 만주국 내의 문화계까지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각박한 상황 속에서 안수길은 만보산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비록 만주국

1) 민족주의가 이러한 단절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견해 중 가장 대표적인 이가 김종욱이다. 「역사의 망각과 민족의 상상」(『국제어문학』, 국제어문학회, 2004) 참조.

2) 이 작품은 만선일보 1941년 11월 16일부터 12월 25일까지 연재되었다.

건국 2년 전이라고 하여 만보산 사건을 피해가고 있지만 이 소설이 만보산 사건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당시 만보산 사건을 다루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었다. 장혁주의 『개간』에서처럼 만주국의 이데올로기에 영합하여 만보산 사건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것이다. 장혁주는 만보산 사건이 일어난 마을이 큰 혼란과 무질서에 시달리다가 만주국 국가 건설 이후에 얼마나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가를 묘사하고 있다. 장학량 정권하에서 조선인들이 시련을 겪다가 만주국 건국 이후에 행복을 찾아간다는 『개간』의 이야기는 그 차제로 만주국 국가이데올로기였다. 그런 점에서 만보산 사건을 다루는 것 자체는 위험하거나 혹은 불온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문제는 만보산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가의 문제이다. 안수길이 이러한 만주국의 국가 이데올로기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안간힘을 쏟았음을 「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주된 지향은 만주국 건국 이전 장학량 정권 시기의 피폐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여 디아스포라적 삶을 살아야 하는 이주 조선인들의 처절한 생존투쟁이다. 국가가 없는 백성들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치여 살아야 하는 서러움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벼」는 시간적 배경을 중국의 민족주의 의식이 가장 강하였던 1929년 무렵으로 선택하였다. 삼시 협정(1925) 이후 중국 정부가 일본을 의식하여 조선인 독립운동을 괴롭히던 시대와는 달리, 1929년 무렵은 중국정부가 조선인들을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의 앞잡이로 보고 있는 시대였다. 중국 동북지역은 이전 군벌시대와는 달리 국민당 정부의 근대화된 세력이 체도를 통하여 통치를 하려고 하던 시대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일본의 침탈을 예민하게 경계하였던 것이다. 「벼」에서 안수길은 당시 중국의 그런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준다. 부패한 예전 관리 대신에 참신하고 깨끗한 관리를 내세운 중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극히 공감하는 서술은 만주국 건국 이전 동북지역의 관리들은 부패하고 무질서하였다고 하는 만주국의 공식 입장을 거스르는 것이다.

양 현장이 새로운 소 현장과 자리를 바꾸게 된 것은 바로 찬수가 학교집을 짓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홍덕호는 양 현장에게 그가 가더라도 학교에 대한 것은 주민의 열성을 받으러 새 현장에게 지장없이 진행하도록 부탁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는 물론 이것을 응낙하였다. 그러나 소 현장은 부임하던 날부터 한 현장이나 양 현장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나이는 젊어 사십을 넘으랴말랴 하였으나 일일에 까다롭기 썩케홀치라는 것이었다. 민국 17년(소화3년) 장개석의 북벌이 성공하여 동년 시월 십일부터 동삼성에도 청천백일기가 나부낀 지 불과 반년이 남짓한 때라 그들은 종래의 매관매직의 부패한 정치를 쇠신하고 삼민주의에 의거한 새롭고 힘센 정치를 펴야 된다고 지방에는 소위 정예분자를 발탁하여 파견하였다. 거기에 발탁되어 온 것이 소 현장이었다. 그는 북경대학을 졸업하자 동경에 가서도 모 대학에서 정치를 배운 일이 있어 지식으로나 패기에 있어서나 또는 정치적 의식에 있어서나 가위 진보적 인물이었다. 한 현장이나 양 현장 같은 돈으로 현장의 자리를 사고 돈만 주면 죽일 놈이라도 살리고 친분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그래야지 하고 허락하는 정치가에 비한다면 국책에 충실하고 의식적인 정치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소 현장은 발탁될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었으나, 그것은 중국이란 국가로 보아 그런 것이고, 매봉돈 주민에게는 정예분자가 아닌 물렁물렁한 한 현장이나 양 현장 편이 더 무난하였다.³⁾

만주국 당국이 이전의 중국 정부를 부패하고 무능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자신들의 만주국 건립을 정당화하려고 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안수길은 장학량 정부의 근대화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그냥 무심히 읽을 수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 작품의 마지막 문장이 “총은 하늘을 향하여 놓은 것이었다. 사람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인 것도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버」에서 만주의 이주 조선인들이 겪는 디아스포라적 수난은 중국과 일본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지 않았더라면 조선인들은 이 같은 수난을 당할 일이 없었다. 만주 사변 이전에는 영사관을 통하

3) 안수길, 1944, 「버」 『북원』, 예문당, 271~272쪽.

여, 사변 이후에는 만주국을 통하여, 일본이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된다. 「벼」에서 매봉둔 조선인들은 소현장이 학교를 폐쇄하고 부수기 전에는 자신들이 일본의 신민이란 생각을 한 적이 없고, 따라서 일본영사관과는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잘 살았다. 그런데 소현장 같이 일본의 중국 침략을 걱정하는 이들이 등장하면서 조선인들이 일본의 앞잡이라는 인식이 훨씬 강화되기 시작하였고 거기에 따라 조선인들의 안위가 위태로워졌다. 결국 중·일간의 긴장이 격화되면서 조선인들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 조선인들이 최후로 선택한 것은 일본 영사관을 활용하는 것이다.

피치 못할 경우라면 학교는 없어져도 괜찮다. 그러나 십여 년간 이룩한 이 고장에서 떠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은 학교문제보다 더 큰 것이었다. 그러므로 학교를 폐쇄하라면 시키는 대로 하고 시일을 천연하여 나카모도를 중간에 넣어 길림영사관에 매봉둔 사정을 진정하여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 생각하였다. 이백여 호나 모여 살면서 지금까지 영사관과 연락이 없은 것은 여기에 그럴 듯한 지도자가 없은 까닭이었다. 찬수 자신이 우선 그것에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은 결국 본다면 적은 문제인 학교에 열중하기 때문이었다.⁴⁾

찬수가 일본 영사관에 연락하면서 기대를 거는 것을 두고 이 작품이 일본의 식민주의에 협력하는 것으로 읽기도 하지만 이는 매우 소박한 독해이다.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일본 신민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막다른 상황에서 생존을 위하여 일본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읽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을 활용하지 않으면 결국 조선인들의 죽음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영사관에 연락하면서 찬수가 떠올리는 것은 자기 형인 익수의 죽음이다. 박치호 일가가 매봉둔에 들어왔을 때 산동 출신으로 조선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중국인

4) 안수길, 1944, 「벼」, 위의 책, 287~288쪽.

지주 방치원은 조선인의 힘을 빌어 황무지를 개간하려고 하는 생각이었기에 문제가 없었지만, 중국인 소작 농민들은 조선인 이주민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동네에 들어오자 방치원의 소작농민들이 지주의 말을 여기면서까지 조선인들을 습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찬수의 형 익수가 속절없이 죽음을 당하였다. 중국 동북의 군벌 정부와 지주들이 조선인 이주 농민들에게 대하여 호의적일 때도 조선인들이 맞아죽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하물며 중국 장학량 정부의 관리들이 이전과 다르게 조선인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마당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찬수는 생존을 위하여 일본 영사관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다. 이 문맥을 분명히 해야만 “길림영사관하고만 연락이 되는 날이면 매봉둔에도 서광이 비칠 것이 아닌가. 그는 나까모도한테 보낸 사람이 돌아 오기만을 기다리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찬수는 형 익수가 죽었을 때의 여러 사람들의 심경을 상상하였다.”라는 대목이 비로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벼」는 중국과 일본이란 두 국민국가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라 없는 백성이 겪는 디아스포라적 수난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국가체제 내에서 민중들은 국민국가를 벗어나서는 생존하기가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국민국가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것은 아니지만 과정으로 국민국가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향이 한국 전쟁 이후의 『북간도』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북간도』를 이한복 일가를 중심으로 읽어내는 것은 그렇게 무리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한복을 일가를 중심으로 읽으면서 그 이외의 것을 무시한다면 그 독해는 대단히 편협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만주국 시기 작품과의 연속성을 염두에 둔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한복 일가와 유사한 인물을 만주국 시기 안수길의 소설에서 읽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북간도』에서 장씨 일가의 서사에 주목하면 그 연속성을 쉽게 읽어낼 수 있다. 이씨 일가는 비타협적 투쟁의 전통을 갖고 있지만 장씨 일가는 다르다. 청인들이

변발을 요구할 때 이씨 일가는 전통적인 조선의 머리를 고집하지만, 장씨 일가는 아예 머리를 서양식으로 잘라버림으로써 전근대적인 조선과 청나라의 억압을 동시에 넘어서는 것이다. 장씨 일가는 중국과 일본 그 어디에도 붙지 않고 이 둘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간도협약 이후 갑자기 ‘이미그런트’⁵⁾가 된 만주 조선인들은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 어디에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적절하게 이들을 활용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 일본을 이용하면서 생존하는 것이 두 나라에 끼인 채 살아가는 조선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 장현도는 과거 변발을 요구하는 청나라의 억압에 맞서 아예 상투를 잘라버렸던 할아버지 장치도의 자세를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거세게 저항하지는 않고 적응해서 살지만 결정적으로 동화되지는 않으려는 현실주의적 태도이다. 『북간도』에서 장씨 일가의 이런 태도는 사실은 만주국 이전의 소설인 「벼」의 주인공 박찬수의 태도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이씨 일가의 한 구성원인 이창윤 역시 이런 태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길은 다르지만, 장현도의 선택이 힘센 나라에 붙어서 살아가거나 혹은 동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점은 작가가 장씨 일가 특히 장현도가 걷는 길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씨의 이창윤과 장씨의 장현도가 서로 나누는 다음 대화의 대목은 『북간도』에서의 작가의식을 잘 보여준다.

창윤이는 얼굴이 부드러워지면 머리를 끄덕이었다. 현도는 말을 이었다.

“...그래서 같은 남으 법으 따를 바에야 청국 법으는 양이 따르겠다는 말 일세.”

마치 결론이나 되는 듯이 얼른 끝을 맺어 버렸다.

5) 안수길은 간도 협약 이후의 조선인들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했다. “일본은 두만강 이북의 간도, 그 영토와 조선 주민을 송두리째 청국에 넘겨주고 만 것이었다. 원한의 통감부 파출소는 몰려갔다. 그러나 그것은 원한을 걸어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큰 원한의 씨를 심어 놓고 간 것이다. 그 뒤엔 무엇이 올 것인가? 이젠 여기가 우리 땅이라고 영입밖에 낼 수 없게 되었다. 북간도의 조선 농민들은 완전히 남의 나라에 온 ‘이미그런트’ 유랑의 이주민이 되고 말았다.”

“자네 말두 일리는 있네마는…”

현도가 그냥 일본법을 따르겠다는 심정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이 그대로 수긍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달리 현도의 생각을 그른 것이라고 비판할 말을 찾아낼 수도 없었다. 사포대 때나 노랑수건 사건 때의 창윤이라면 청국 토호와 관헌은 물론 싫다. 그리고 일본은 더욱 싫다. 한 마디로 단언했을 것이다. 그게 무슨 쓸개 빠진 수작이나고 현도를 나무랐을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창윤이는 그때의 패기가 가셔진 것일까? 나이를 먹어 가는 탓일까?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청국의 토호나 관헌들과 옥신각신을 겪는 사이에 현실을 보는 눈이 침착해진 탓일지도 모른다. 생각이 껍이나 유연해졌다. 벌써 삼십객이었다.

“일리는 있지만에두 일본법으 따르는 거는 옳지 않다 그깡가?”

같은 삼십객인 현도는 더욱 여유가 있었다. 현실적이었다. 장사하는 동안에 그렇게 되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글쎄…”

“글쎄 할 줄을 알았네. 난들 좋아서 일본법으 따르자구 하겠능가? 국권이 절반 이상이나 일본에 넘어가구 있는 이 마당에서 말이네. 그러나 그래두 숨으 쉴 수 있는 데가 여기네. 일본 아이들이 영사관이라고 해서 저어 나라 깃발으 높이 달구 있지마는 거기 무슨 상관이 있능가? 가아들이 우리르 보호해주다문, 그러라구 해두잔 말이네. 그거를 되비(오히려) 이용해 보자능길 세.”⁶⁾

현도의 길에 대한 창윤의 이런 생각은 나중에 창윤이 아들 정수를 용정에 있는 학교에 넣으려고 할 때 현도와 벌이는 논쟁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을 정도로 이 작품에서 지속되고 있는 지향이다. 그런 점에서 만주국 이전의 소설 「벼」와 한국전쟁 이후 소설 『북간도』 사이에는 일관된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씨 일가이다. 이씨 일가는 과거 만주국 하에서 발표한 안수길의 작품에서는 나온 적이 없는 성격이다. 그런 점에서는 『북간도』를 이전 작품과 단절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이씨 일가의 증

6) 안수길, 2004, 『북간도』, 미래의 창, 302~303쪽.

손자인 정수가 나중에 증경으로 가는 등의 행보는 이 작품이 민족주의로 채색되었음을 더욱 잘 말해주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점도 앞뒤를 잘 살펴보면 그리 낯선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안수길은 1935년 무렵 첫 작품을 발표했다. 이 시기는 만주국 체제가 정착되면서 저항운동이 급속하게 사라지던 때이다. 만주 지역에서 같은 작가로 살았지만 선배 작가 강경애와 안수길은 시대적 상황이 달랐다. 강경애가 작품 활동 시기는 만주국 건국 이전과 이후에 걸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경애는 비록 우회적이지만 만주에서의 다양한 저항운동을 소설 속에 재현할 수 있었다. 물론 「소금」에서 보는 것처럼 그때도 저항운동을 그리는 것은 쉽지 않았고 그래서 강경애는 검열을 피해 우회적으로 그려내려 하였고 그마저도 검열에 걸려 마지막 대목은 삭제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삭제된 부분을 살려 대략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지만 당시의 독자는 온갖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 그러던 강경애마저도 1930년대 후반에 이르면 작품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탄압이 강해졌다. 바로 이런 무렵에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던 안수길의 작품에서 어떤 저항운동-그것이 민족주의이든 사회주의이든-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안수길이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1930년대 말 무렵의 작품에서 그러한 흔적을 찾는다는 것은 검열을 비롯한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안수길이 그럴 수 있는 최대치는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는 조선인들이 만주국 이후 일본에 적응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길이고, 이외에 다른 것은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주국 하에서 쓰인 작품에서 『북간도』에서 볼 수 있는 이씨 일가의 민족주의적 저항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만주국 시기의 안수길은 다양한 형태의 저항운동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해방 후 이러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났기에 『북간도』에서 이씨 일가와 같은 인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볼 때 『북간도』의 민족주의적 저항을 해방 이후 안수길의 사고에서 새롭게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3. 『북간도』와 반공이라는 국가 이데올로기의 개입

『북간도』는 1959년부터 1963년까지 3부에 걸쳐 잡지 『사상계』에 연재되었고 이후 제4부 5부는 연재되지 않고 전작으로 발간되었다. 문제는 제1부부터 3부까지와 다르게 제4부와 제5부는 긴 역사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소략한 서술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북간도』는 역사를 배경으로 세 일가의 이야기를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 이끌어내기 때문에 각 장마다 특별한 구성을 취한다. 장의 앞 대목에 정치적 사건을 비롯하여 역사의 큰 흐름을 서술하고 이어서 인물의 삶을 묘사하는 방식이다. 이 둘 사이의 연계가 자연스러울 경우 생동성이 살아나는 반면, 그렇지 못할 때에는 소설이 아닌 역사 이야기가 되고 만다. 그런데 연재되지 않고 전작으로 발표된 『북간도』 제4부와 제5부의 경우 그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여 역사 이야기로 떨어지는 느낌을 준다. 특히 제5부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⁷⁾ 만주국 건국 이후부터 1945년까지의 시기를 얼마 되지 않는 한 장으로 모두 소화하고 있을 정도이다.

안수길은 1924년 만주로 이주했다. 작가가 자신이 직접 겪지 않은 시기에 대해서는 아주 장황하게 묘사하는 반면, 그 자신이 체험하고 잘 알고 있었던 1924년 이후의 시기에 대해서는 건성으로 지나가 버리는 이 역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작가적 불성실부터, 만주국 시기에 겪었던 복잡한 정황을 제대로 재현하기에는 스스로 부담을 느꼈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나왔다. 최근에 와서 두드러진 주장은 민족주의의 과도한 개입이 이런 파탄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북간도』 내에서의 이러한 단절이 그 시대 남한의 국가 이데올로기인 반공이데올로기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본다.

1930년대를 전후하여 만주에는 사회주의가 강하게 대두하였다. 그 이전

7) 『북간도』 내부의 현저한 단절에 대해서 가장 깊이 분석한 것으로 김윤식의 『안수길 연구(정음사, 1986)를 들 수 있다.

에는 민족주의가 주를 이루었지만 1920년대 말 이후 사회주의 세력이 맹위를 떨쳤다. 이전에 민족주의자였던 이들이 사회주의로 전환할 만큼 사회주의의 위력은 강하였다. 1920년대 중반 이후 만주에 이주하여 생활하였던 안수길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 『북향』이란 잡지를 강경애와 같이 할 정도였으니 당시 만주에서의 사회주의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북간도』의 제4부와 5부는 이 시기를 다루어야 하는데 이는 작가에게 대단한 부담이었다. 당시 남한 사회의 국가 이데올로기는 반공주의였고 특히 만주국 정부와 군대에 복무하였던 이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작가가 만주국 시절의 조선인 사회와 인간을 다루면서 사회주의자들을 그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만주국 정부기구에 복무하였던 조선인들을 그린다는 것도 동시에 불가능하였다. 작가로서는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을 다루고자 하니 국가의 억압이 강하게 작용하고, 마음에 없는 것을 쓰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안수길은 해방 후에 월남을 택한 만큼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지 않았다. 하지만 만주에서의 사회주의자를 비판적으로라도 그리는 것이 작가로서 양심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이 만주 역사에서 행했던 역할을 부정하거나 그들을 침묵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그는 결국 본격적인 소설 작업 대신에 짧은 역사 서술을 택했다. 당시 국가 이데올로기의 억압을 작가 안수길은 끝내 이겨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필자의 이런 판단은 『북간도』 작품 내부의 결절에 대한 분석에서 나온 것이지만 주변 자료도 이런 판단을 뒷받침해 준다. 하나는 이 무렵에 발표된 안수길 자신의 작품이고 다른 하나는 『북간도』 발간 전후에 발생한 공안 사건들이다.

안수길은 『북간도』 제1,2,3부를 마치고 난 다음 전작으로 제4,5부를 준비하던 막간에 단편을 몇 편 발표하는데 그 중에서도 1964년 『문학춘추』에 발표한 「IRAQ에서 온 불온문서」와 1965년 『신동아』에 발표한 「효수」는 대단히 시사적이다. 「IRAQ에서 온 불온문서」는 이라크로부터 온 우편물에 김

일성 홍보물이 든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겪는 한 월남 부부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월남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반공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것 같지만 이들마저도 공포에 떨 정도로 당시의 국가 반공 이데올로기의 억압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불안에 시달리는 한 지식인의 내면을 통하여 당시 작가를 비롯한 한 지식인이 얼마나 이 공포로부터 강한 억압을 받고 있는가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루 내내 불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민하는 바람에 약속했던 원고를 결국 창작하지 못하는 결말은 대단히 시사적이다. 작중 인물인 작가가 겪는 고뇌는 결국 안수길 자신의 고백일 것이다. 이런 정황 속에서 『북간도』의 제4,5부가 역사이야기 수준에서 급속하게 끝나고 만 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만주에서의 사회주의자를 그려야 하고, 또 만주국에 복무하였던 이들을 그려야 하는데 당시의 남한 사회에서 그것이 가능했겠는가. 그렇게 했다면 당시의 국가 권력은 결국 그로 하여금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여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효수」 또한 매우 흥미롭다. 『북간도』를 쓰는 막간에, 『북간도』와 동일하게 만주를 배경으로 하여 쓰인 이 단편소설은 『북간도』의 파탄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준다. 「효수」는 일제 말 작중화자인 기자가 신문사의 현지 취재차 나갔던 길에서 반만주국 활동을 하였던 주의자들의 잘린 목이 동네에 높이 걸려 있는 것을 목격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일제 말 만주에서 효수를 당한 이들은 단순한 ‘토비’가 아니고 만주국에 저항해 싸우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만주국에 복무하면서 이들 반만주국 주의자들을 잡아다 목을 찢던 이들을 비판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효수를 보면서 그가 떠올린 중국 인물 중에는 『민성보』에서 열심히 일하던 인물도 들어 있다. 『민성보』는 1928년 2월에 창간되어 만주국이 건국하는 직전까지 존속하였던 대표적인 반일신문이었다. 초기에는 중문판과 조선판을 같이 내다가 1928년 9월 이후 조선문판이 분리되는 과정을 거칠 정도로 조·중 연대에 입각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던 진보적 성향의 신문이었다. 당시 조선총독부 경무

국 도서관에서 발간하던 『조선출판경찰월보』를 보면 『민성보』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인쇄물 중 검열에 가장 빈번히 걸린 신문이다. 그만큼 당시 영향력이 컸고 반일 성향이 강하였던 좌파 신문이었다. 바로 여기에서 일하던 중국 지식인이 효수당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작중 화자가 깊은 슬픔에 빠진다고 쓴 것으로 미루어, 안수길은 당시 만주에서 일어나고 있던 급진적 계열의 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일정하게 동감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북간도』에서 사회주의를 비롯한 급진적인 운동을 다루어야 하는 시점에서 작가가 소설을 역사 이야기 수준으로 후퇴시키면서 급히 마감했던 것은 이러한 외적 사정과 깊은 관련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북간도』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그리는 것은 상황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만주국에 복무하던 이들에 대해 강한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최씨 일가의 자손을 통하여 이를 보여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음도 알 수 있다. 이씨 일가의 정수가 중경에서 온 민족주의자와 연대하는 것으로 속히 마무리 짓고 정작 그리고자 했던 것은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작가 안수길의 『북간도』 창작에 미친 흔적은 텍스트 바깥의 공안사건에서 확인가능하다. 직접적인 것으로는 남정현 『분지』사건에의 개입이다. 1965년 남정현의 소설 분지가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것으로 하여 기소되었을 때 안수길은 특별변호인으로 나서 작가 남정현을 옹호하였다. 안수길이 죽고 난 다음 남정현은 그를 추모하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당시의 어려운 정황을 말하고 있다.

5·16 군부 세력이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며 칼춤을 추던 1960년대는 실로 난감한 세월이었다. 반공과 멸공만이 최고의 가치라 그 이외의 사회적인 제 가치는 어따대고 숨쉴 데도 없었다. 그런즉 당시엔 친미니 반미니 하는 그런 말 자체가 존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반미는 곧 용공이요, 용공은 곧 죽음을 뜻할 수도 있다는 식의 그런 일종의 어이없는 생존 등식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사회에 자리잡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런 시절에 반미와 용

공이 문제가 되어 당국과 시비가 붙은 소위 그 ‘『분지』사건’의 재판장에 특별변호인의 자격으로 안수길 선생이 섰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 혹시 자기에게 돌아올지도 모를 사회적 무슨 불이익을 감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가 붙어야만 가능한 행동이었기 때문이다.⁸⁾

남정현이 받는 고통을 고려할 때 자유롭게 자신의 소신을 펼치기가 어렵다는 것을 감지하였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주에서의 항일운동을 온전하게 다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안수길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지만 당대의 이데올로기적 정황을 알려주는 것으로 『독립운동사』 편찬 사건을 들 수 있다. 일본의 배상금으로 마련된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가 『독립운동사』를 편찬하려고 하였을 때 ‘제5권 독립군전투사(하권)’(1973년에 발간)을 집필하던 조동걸이 만주에서의 김일성의 행적을 포함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잡혀갔다. 조사를 받고 조동걸은 풀려났지만 발간된 책에서는 김일성에 대한 그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이런 정도의 억압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안수길이 『북간도』에서 만주의 항일운동을 객관적으로 다룰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안수길이 『북간도』 제4,5부를 부실하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민족주의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하여 작품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작품에 대한 온당한 해석이 아니다. 오히려 반공이라는 당대 국가이데올로기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8) 남정현, 2007, 「안수길 선생의 특별변론」 『안수길 문학, 그 삶의 향기』, 한국소설가협회.

4. 국민국가 체제 내의 디아스포라적 상상력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살면서 얼되놈(친중파)도 친일파도 되지 않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던 만주의 조선인이 깨닫는 것은 국민국가체제 내에서 국가의 보호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점이다. 중국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생존을 위해 일본을 이용해야 하는 순간에 이러한 인식은 그 절정에 달한다. 국민국가체제가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는 국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인식이 수반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인식은 민족주의로 쉽게 기울게 된다. 하지만 안수길 문학이 갖는 힘 중의 하나는 국민국가의 필요성 못지않게 그것이 갖고 있는 폭력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국민국가체제는 국가 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그 사이에 끼인 사람들에게 가혹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넘어서야만 한다는 것이다. 디아스포라적 상상력은 바로 국민국가체제의 내적 모순을 정직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안수길이 문학이 디아스포라적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안수길 문학이 국민국가체제 외부의 디아스포라적 상상력이 아니라 국민국가체제 내의 디아스포라적 상상력에 기반을 두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안수길 문학이 갖고 있는 이러한 내적 긴장을 읽어 내는 것은 안수길 문학 그 자체의 이해는 물론이고 오늘날 우리가 처한 곤경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참고문헌

- 안수길, 1944, 『북원』, 예문당.
_____, 1977, 『명아주 한포기』, 문예창작사.
_____, 2004, 『북간도』, 미래의 창.
김윤식, 1986, 『안수길 연구』, 정음사.
한수영, 2003, 「만주의 문학사적 표상과 안수길의 북간도에 나타난 ‘이산’의 문제」 『상허학보』11집.
김종욱, 2004, 「역사의 망각과 민족의 상상」, 국제어문학.
이선미, 2005, 「만주체험과 만주서사의 상관성 연구」 『상허학보』15집.
김미란, 2009, 「만주 혹은 자치에 대한 상상력과 안수길 문학」 『상허학보』25집.
김재용(편), 2010, 『만보산 사건과 한국근대문학』, 역락.

■ Abstract ■

Ahn Su-Gil's Experience of Manchuria and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Kim, Jae-Yong

Ahn Su-Gil's *Bukando* is the novel which represents the experience of Manchuria after emancipation especially in South Korea. The perspective of it is different from other writer who stay in North Korea or China in postcolonial period. It is very interesting to compare three types of narration and perspective. The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between *Bukando* and the fiction which is written by Ahn Su-Kil in the colonial period of Manchukuo is very controversial. Scholar who insist that there is rupture between works of postcolonial period and those of colonial period pointed out that nationalism interrupt the text. I think that there is no discontinuity. Ahn Su-Kil's perspective which run through the works of colonial and postcolonial period is predicament of nation state. People can not survive in safety without the help of nation state, but nationalism which is the ideology of nation state is very oppressive to people. His position of diaspora in the Manchuria made him to recognize this dilemma of nation state. This kind of perspective persists after the emancipation through the work of *Bukando*. Meanwhile, the rupture between first half and second half of *Bukando* is also controversial. Many scholars recognized the rupture in the text of *Bukando*. But there is discord about the cause of this rupture among them. While some scholar insist that it is originated from the ideology of nationalism, other scholar insist that it is originated from mere writer's capability. I think that it is because of censorship from anti-communist government policy. At that time, writers cannot mention about the movement of Kim Il-Sung in Manchuria because of anti-communist ideology in south Korea. He must deal with not only

nationalist but also socialist anti-Japanese movement in Manchuria in the second half of *Bukando*, but he can not because of censorship. So there is big rupture and discontinuity between first half and second half.